

김일성종합대학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우리 당의 품속에서 태어나고 장성강화되어온 영광스러운 대학

김 경 철

주체과학교육의 최고전당 김일성종합대학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혁명의 전진과 더불어 간고한 투쟁과 시련의 고비를 넘으며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로정을 걸어온 대학이다.

김일성종합대학의 자랑스러운 력사속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교육사상과 리론, 탁월한 령도의 빛나는 승리가 아로새겨져있으며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고 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헌신해온 교육자들의 열화같은 애국충정이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은 김일성종합대학의 창립자, 건설자이시고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자애로운 아버지, 스승이시며 김일성종합대학은 명실공히 수령님과 장군님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태어나고 장성강화되어온 김일성동지의 대학, 김정일동지의 대학입니다.》

자체의 민족간부를 키워내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며 자주독립국가건설에서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관건적인 문제이다.

일제의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자기의 민족지식인들을 가지고있지 못하였고 현대기술문명에서 멀리 떨어져있던 우리 나라에서 해방후 민족간부를 키워내는것은 사활적인 문제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직후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새 조선건설의 절실한 요구와 먼 앞날을 깊이 통찰하시고 민족간부를 키워내는 대학들을 일떠세울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였으며 그 모체로 될 종합대학부터 창설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선견지명의 현명한 령도와 해방직후 우리 인민의 높은 애국적열의에 의하여 김일성종합대학은 주체35(1946)년 10월 1일 참다운 인민의 대학으로, 주체과학교육의 최고학부로 세상에 태어났다.

김일성종합대학의 창립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주체적인 교육사상과 민족간부양성정책의 빛나는 결실이었으며 우리 나라에서 진정한 고등교육발전의 새 기원을 열어놓고 지식인대부대, 자체의 민족간부풀간들을 키워낼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마련한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김일성종합대학은 창립후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혁명의 폭풍우를 뚫고 투쟁의 불길속에서 혁명인재를 키워온 혁명적인 대학으로,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함께 과학교육의 최고전당으로 발전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들과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주체교육의 최고전당, 민족간부양성의 위력한 기지로 강화발전된 영광스러운 대학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종합대학이 나아갈 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였으며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김일성종합대학을 주체과학교육의 최고전당, 민족간부양성의 믿음직한 기지로 꾸려주시기 위하여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김일성종합대학의 자랑스런 력사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적과 불멸의 령도업적이 빛나게 아로새겨져있다.

주체49(1960)년 9월 1일 김일성종합대학에 령도의 자욱을 옮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불면불휴의 탐구와 정력적인 활동으로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며 대학의 모든 사업이 명실공히 조선혁명에 참답게 이바지할 민족간부를 키워내는 과정으로 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을 키워내기 위한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종합대학은 주체교육의 전당, 민족간부양성의 중심기지로서의 면모를 보다 훌륭히 갖추어나가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선군혁명령도로 당과 군대, 국가사업전반을 이끄시는 나날에도 김일성종합대학이 어버이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 대학을 현대적으로 더 잘 꾸리고 수령님의 주체적인 교육사상과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는데서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새 세기 김일성종합대학을 세계일류급의 대학으로 꾸릴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고 대학에 최상급의 전자도서관과 수영관을 일떠세워주시였으며 주체98(2009)년과 주체99(2010)년 한해 남짓한 기간에만도 대학을 무려 4차례나 찾아주시여 종합대학을 세계일류급대학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과업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계일류급대학건설구상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최신식실험실습설비들을 마련해주시고 김일성종합대학이 세계에로 나가기 위한 조치들도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사회주의수호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을 발기하시고 설계로부터 시공에 이르는 건설전과정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여주시였다. 건설이 완공되었을 때에는 준공식장에까지 나오시여 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을 축복해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그후 김일성종합대학창립 70돐을 맞으며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주시여 위대한 장군님의 세계일류급대학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떨쳐나선 대학의 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을 고무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김일성종합대학은 원사, 교수, 박사들을 비롯한 우수한 교육과학력량과 세계가 인정하는 새 세대 청년과학자들이 자라나고 종합대학의 체모에 맞게 대학, 학부, 학과들이 그쯘하게 갖추어졌으며 교육설비들의 현대화, 정보화수준이 높아지고 첨단제품생산기지들이 꾸려져 대학을 세계일류급의 대학으로 건설할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였다.

오늘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중심으로 하여 거대한 대학촌을 이룬 룡남산지구는 주체적인 교육, 과학발전과 부강조국건설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이 응축되어있고 우리 당의 교육중시, 인재중시사상과 로선의 정당성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력사의 증견자로, 주체혁명의 최후승리의 려명이 밝아오는 성지로 빛을 뿌리고있다.

세상에는 나라들마다 대학들이 있고 또 세계적으로 력사가 오래고 규모가 큰 대학들도 있지만 **김일성**종합대학처럼 위대한 수령님들의 손길아래 성장하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의 축복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품속에서 주체과학교육의 최고전당, 민족간부양성의 위력한 기지로 강화발전된 영광스러운 대학은 없다.

김일성종합대학은 다음으로 위대한 수령님들과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의 폭풍우를 뚫고 투쟁의 불길속에서 주체혁명위업에 충실히 복무하는 혁명인재들을 수많은 키워온 혁명의 대학이다.

새 조국건설의 첫 시기에 창립되어 터전을 닦은 **김일성**종합대학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시련과 전후복구건설의 난관을 헤쳐왔으며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벽찬 투쟁속에서 숭고한 정신과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골간들을 수많은 키워냈다.

언제나 학생들을 《글뒤주》가 아니라 혁명의 시련을 이겨낼수 있는 혁명인재로 키우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량반학자》가 아니라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고 폭탄맛을 아는 전투적인 인재로 키워내는것을 전시 대학교육방향으로 제시해주시고 **김일성**종합대학이 당의 전시대학교육방침관철에서 앞장서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또연속을 헤치시고 주체41(1952)년 4월 백송리에 자리잡고있던 **김일성**종합대학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종합대학 학생모두가 《**학습도 전투이다!**》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영웅조선의 대학생들답게 학습전투에서 승리자의 영예를 떨쳐 조국의 래일을 걸머지고나갈 혁명인재로 튼튼히 준비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후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사대와 교조에 물젖어 우리의것을 외면하고 다른 나라의것을 선전하고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 대두한 기회주의사상조류를 우리 나라에 끌어들이기 위하여 책동하고있을 때 주체를 세우는것을 대학교육의 생명선으로 규정해주시고 **김일성**종합대학이 교육교양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확립하고 당의 사상과 어긋나는 사대주의, 교조주의, 수정주의, 종파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당적, 반혁명적사상조류를 반대하는 투쟁의 앞장에 서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던 1960년대 후반기 **김일성**종합대학에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고 유일사상교양의 거점들을 꾸리도록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으며 종합대학을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선 수령님의 대학, 당의 대학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력사적시기에는 **김일성**종합대학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 선도자적역할을 수행하는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혁명의 새시대, 선군시대에도 **김일성**종합대학이 주체적인 CNC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여러 부문과 단위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유능한 혁명인재들을 키워내며 전국의 본보기대학으로서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시었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친필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숭고한 정신과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골간이 되라!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위대한 당, 김일성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라!》는 김일성종합대학이 주체혁명 위업, 선군혁명위업계승완성의 대를 곳곳이 이어나갈 민족간부들과 과학기술인재들을 키워내는 성스러운 사업에서 좌우명으로, 기치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각별한 사랑과 은정속에서 성장해왔으며 자나깨나 위대한 장군님을 몸가까이에 모시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가려는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의 소망을 깊이 헤아리시여 대학에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모시고 혁명사적관을 건립하도록 해주시었다.

그리고 김일성종합대학 교원들과 일군들을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를 비롯한 큰 규모의 국가적인 대회들에도 불러주시고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앞장에 서도록 크나큰 믿음과 은정을 거듭 안겨주시었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이 있어 김일성종합대학은 우리 혁명의 전진과 더불어 간고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교육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일련단심 당을 따라 충정의 한길, 애국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오면서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 당과 국가의 믿음직한 핵심골간, 여러 분야의 능력있는 전문가들을 수많은 키워낼수 있었다.

김일성종합대학 졸업생들은 당과 수령의 크나큰 정치적인임과 기대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우리 당과 공화국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주요전구들에서 당과 혁명의 핵심, 전위투사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고있다.

위대한 주체의 기치, 선군의 기치따라 전진하고 승리하여온 우리 혁명의 영광스러운 년대기우에는 김일성종합대학 졸업생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공적이 뚜렷이 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의 년대기마다 준엄한 폭풍우를 뚫고 혁명과 건설에서 핵심적역할을 하는 유능한 민족간부를 수많은 키워낸것이야말로 김일성종합대학의 가장 큰 업적이며 커다란 공지이다.

김일성종합대학은 다음으로 위대한 수령님들과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에 적극 이바지한 자랑스러운 대학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김일성종합대학의 제일생명이며 영광스러운 전통이다.

김일성종합대학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고 혁명의 년대기들마다 언제나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였으며 당의 구상과 의도를 제일 앞장에서 결사관철하였다.

교직원, 학생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대학을 혁명사적지답게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후세에 길이 전하는 교양거점으로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이 높은 충정의 열도로 진행되어 위대한 장군님의 명제비 《조선아 너를 빛내리》가 정중히 세워지고 백두산3대장군 현지교시판, 현지말씀판들이 최상의 수준에서 건립되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적이 깃들어있는 대학의 전반적면모가 새 세기의 맛이 나게 더욱 훌륭하게 개선되고 백송혁명사적지와 어은혁명사적지를 비롯한 사적지들이 위대

성교양거점으로 더 잘 꾸려졌다.

김일성종합대학은 우리 당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적립장에서 과학연구사업을 적극 벌려 우리 나라 과학교육의 최고전당으로서 김일성-김정일주의와 당정책의 정당성을 론증하고 널리 해설선전하며 경제와 문화, 국방력강화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훌륭히 해결함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육자들은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수많은 사상리론교양도서들과 교재, 참고서들을 만들어 주체의 사회과학리론발전과 사회과학전문가양성의 질을 높일수 있게 하였으며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 기초과학발전을 위한 연구사업과 정보과학기술을 최단기간에 높은 발전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연구사업,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서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은 당의 부름따라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떨쳐나 로력적위훈을 새기었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은 일찌기 대학창립초시기부터 건국사상총동원운동과 문맹퇴치운동을 비롯한 새 조국건설을 위한 사회정치활동에 적극 떨쳐나섰으며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손에 총을 잡고 조국을 지켜 싸웠다.

서평양경기장과 서평양오수간선공사, 대성산유원지건설공사와 와산동-룡성사이도로 확장공사, 문수거리와 광복거리, 통일거리와 문수-련못거리건설장을 비롯한 건설장들에는 당과 수령의 구상과 의도를 빛나게 실현하는데서 선봉대, 돌격대의 영예를 높이 떨친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학생들의 애국의 마음이 뜨겁게 어리어있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룩된 이 모든 귀중한 성과들은 우리 혁명발전과 부강조국건설의 년대기에 아로새겨져있으며 우리 당과 인민의 커다란 자랑으로 되고있다.

이처럼 김일성종합대학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랑찬 발전의 길을 걸어온 영광스러운 대학이다.

김일성종합대학의 전체 교직원, 학생들은 만민이 우러르는 위대한 태양의 존함으로 영광스럽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으로 빛나는 대학에서 사업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최후돌격전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감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도대로 기어이 대학을 온 세상이 부러워 바라보는 세계일류급대학으로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에 일류급대학, 민족간부